

[ 국제 ]

# 부시 '이라크 증파안' 상원 격돌

미국 상원이 이르면 5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증파안을 놓고 일대 결전을 벌일 태세여서 주목된다.

공화, 민주당은 5일 상원에서 버지니아주 출신 공화당 존 워너 상원의원이 제출한 증파 반대결의안을 놓고 본격 심의에 돌입, 표대결도 불사할 예정이다.

현재 상원에는 지난 1일 외교위원장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 델라웨어)이 워너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증파 반대결의안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별도 결의안을 제출, 모두 2개의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수뇌부는 이라크 증파 반대결의안이 관철될 경우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워너 결의안은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 소요예산을 거부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

상원 반대 결의안 심의 돌입...중진들 '대국민 홍보' 치열

부시, 이라크 전비 등 1천억달러 추가 요청 격론 불가피

최악의 경우 부시 대통령의 증파안이 무기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당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표 대결 가능성과 상원 의석분포=부소속 의원 2명의 정치성향을 감안한 상원 의석 분포는 민주 51, 공화 49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백악관은 추가 파병안이 상원에서 거부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41표를 확보해야 한다.

물론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반대에 대한 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국민 여론을 재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라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에 적잖은 심리적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실장은 CNN의 '데이트 에디션' 프로그램에 각각 출연했다.

먼저 상원 군사위 소속 매케인 의원은 "양당 의원들이 뜻을 모아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미군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같으며,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펜스타인 의원은 공화당의 결의안 처리 지지 움직임을 '의사진행 방해 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의회내 다수인 민주당이나 유권자들이 그런 지연전술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천문학적인 이라크 전비 추가요청 격론일 듯=부시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라크 전비 충당을 위한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올해 책정됐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1천억여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 요청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연합뉴스

## ■ '요코이야기' 끝나지 않는 논란

"아버지는 '일본 외교관' → "그건 '별명'"

"2주간 공습" → "미군기 지나는 것 봤을 뿐"

"인민군에 쫓겼다" → "마주친 민병대 누굴까?"

## 엇갈리는 해명에 왜곡 의혹 증폭

'요코이야기(원제 So Far From the Bamboo Grove)'의 저자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씨는 한 국내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책이 실화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핵심적인 의문사항들에 대해서는 책 내용과 엇갈리는 해명을 내놓아 왜곡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요코씨는 중앙일보와의 해명성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의 일부 내용들과 부친의 행적에 대해 오빠와 관련된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보고 겪은 것"이었으며 역사적 왜곡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요코씨의 해명 중 상당 부분은 책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남에 대나무 숲 있었다=요코씨는 추운 지방인 함경북도 나남(청진)에 대나무가 살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머니가 대나무를 그리워해 일본 아오모리에서 옮겨심었으며 그것이 약 10년간 번졌지만 큰 '숲'은 아니었고, 가늘고 긴 대나무 '풀밭'이었다"고 해명했다.

◇1945년에 인민군 있었다=요코씨는 당시 인민군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

련, "역사보다 나의 생존에 초점을 맞췄다"며 역사적으로 인민군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주했던 북한 민병대는 누구일까?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1945년 7월 미군이 나남 공습했다=요코씨는 "나는 미군기가 나남을 '폭격했다'고 쓰지 않았다. 경보사이렌이 울려 대피해었다 미군이 3대가 머리 위를 지나갈 뻔했다고 썼다. 당시 나남에 살았던 일본 교통부장관도 B-29를 봤다니 내가 본 것도 B-29 아닐까? 난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요코 아버지는 누구인가=요코씨는 첫번째 책에서 아버지가 만주에서 일한 '고위 정부 관리'라고 했고, 두번째 책인 '오빠, 언니, 그리고 나'에서는 "일본 외교관이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친이 남만주 철도 회사 행정부에서 일했으며 '별명'이 외교관이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외교관이란 직업이 흔치 않았을 1940년대에 사내 사람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이유로 외교관이란 별명이 붙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 "평양 갈 방법 찾겠다"

訪韓 힐 차관보, 6자회담 낙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평양에 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방한한 힐 차관보는 이날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또 중유 대신 북한에 다른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단서를 붙인 했지만 그가 평양 방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을 북핵문제 타개를 위한 6자회담의 결과를 낙관하는 것처럼 인식됐다.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국 내에 너무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운을 떼면서 "미국의 회담의 부분적인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상황 변화 있으면

개성제품 한국産 인정"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 밝히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만약 상황변화가 있으면 미국 정부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장관이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배석한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오는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등에 진전이 있을 경우 원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 난리'

사망 20명 이재민 34만명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최근 수 일동안 내린 비로 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3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기업 1천여개 중 50여개가 피해를 입는 등 한국 기업의 피해도 늘고 있다. 4일 자원봉사자들이 홍수로 물에 잠긴 가옥 지붕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란, 11일 '핵주권' 공표할 듯

美 일각 "정치적 쇼" 평가절하

이란이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드 아마디네지드 대통령의 직접 발표로 자국의 '위대한 업적'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핵령 파스통신은 3일 일간지 '핵주권'과 관련한 중대발표가 혁명기념일인 2월 11일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스통신은 아마디네지드 정부가 "이란의 뛰어난 발전과 성과를 앞으로 며칠 안에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2월11일은 양도할 수 없는 이란의 핵기술 접근·이용권이 확립되는 날이라는 점을 아마디네지드 대통령이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가자데 이란 원자력기구 의장도 5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무리급 농축활동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 핵문제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짓는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4일 분석 기사를 통해 이란의 예고는 '허풍'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란이 남부 나탄즈의 무리급 농축공장에서 '광우진' 핵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치적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핵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것.

이란 정부가 실행 프로그램에서 후퇴와 실패를 겪어왔던 사실은 이란이 기술력보다는 선전을 앞세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공 시 최 고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지)
2006카공 264 강성문	1)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파크 1차 102-1306호 자기앞수표(4399737~4399745) 각금1,000,000원(9매) 2)2006년 10월 2일 3)강성문(구배농협간접합동조합)
2006카공 309 최윤규	1)광주 북구 중흥동 279-61(송달장소:광주 북구 중흥동 279-61) 가계수표(가101038196)금2,600,000원 2)2006년 8월 8일 3)강윤기(광주은행 여수지점) 가계수표(가101038197)금2,600,000원 2)2006년 8월 12일 3)강윤기(광주은행 여수지점)
2006카공 315 박병순	1)부산 동래구 사당2동 생동아파트 106-2501 자기앞수표(32228002) 금1,000,000원 2)2006년 10월 16일 3)농협중앙회 순천농협주무지점
2006카공 316 전대승	1)평양시 금호동 장미아파트 6-502호 자기앞수표(거마44612863, 거마44612864) 각금100,000원(2매) 2)2006년 5월 16일 3)국민은행 광양지점 출장소
2006카공 322 주식회사 서일 대표이사 서상원	1)순천시 별량면 근치리 270-1 약속어음(자카03341231, 자카03341233~03341240) 각금 미기재 2)미기재 3)미기재
2006카공 323 주식회사 서일산업 대표이사 서상원	1)광양시 태인동 1663-1 약속어음(자카24362807~24362810) 각금 미기재 2)미기재 3)미기재
2006카공 331 서경희	1)순천시 덕림동 우영아파트 106-1506 자기앞수표(09204016~18) 각금100,000원(3매) 2)2006년 12월 19일 3)전남낙농농협
2006카공 332 최진용	1)순천시 해평면 상삼리 송문아파트 101-806 자기앞수표(54437634) 금1,000,000원 2)2006년 10월 23일 3)순천농협삼산지점
2006카공 334 서미진	1)순천시 해평면 상삼리 부영아파트 301-208 자기앞수표(45843522~23) 각금1,000,000원(2매) 2)2006년 12월 27일 3)전남낙농농협
2007카공 1 배석동	1)여수시 소라리 대안리 12070-1 자기앞수표(68201012~13) 각금100,000원(2매) 자기앞수표(83096828~89) 각금500,000원(2매) 2)2006년 12월 28일 3)여수농협농협서곡동본소
2007카공 2 손영숙	1)순천시 연향동 1370-12 자기앞수표(가125723920~24) 각금100,000원(5매) 2)2006년 12월 26일 3)농협중앙회 복순신지점
2007카공 4 김종미	1)순천시 장전동 33-6 자기앞수표(04200319~21) 각금1,000,000원(3매) 자기앞수표(66659985~88) 각금100,000원(4매) 2)2006년 12월 26일 3)순천농협 장전지점
2007카공 6 김병근	1)평양시 중동 1434 광공2차아파트 104-705 자기앞수표(5342111~15, 53421117~20) 각금100,000원(9매) 2)2006년 12월 2일 자기앞수표(69652708~10) 각금100,000원(3매) 2)2006년 12월 17일 3)국민은행 동광양지점
2007카공 7 조남규	1)여수시 공화동 924 약속어음(01608717) 금 미기재 2)미기재(미기재) 3)조남규(여수시)
2007카공 8 양 실	1)여수시 돌산동 우두리 청솔아파트 301-1102 자기앞수표(나미52206021) 금1,000,000원 2)2006년 9월 27일 3)여수농협동부지점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지)
2007카공 9 김병기	1)순천시 연향동 현대아파트 204-1004 (송달장소:순천시 서면 구삼리 151-1 현대오일뱅크) 자기앞수표(57594682~83) 각금1,000,000원(2매) 2)2007년 1월 4일 자기앞수표(57594305)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7일 자기앞수표(15110027~31) 각금1,000,000원(5매) 2)2007년 1월 4일 3)하나은행 순천지점(하나은행 순천지점)
2007카공 10 임형용	1)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94 자기앞수표(29834328)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6일 3)국민은행 여수지점 자기앞수표(50766662) 금100,000원 2)2006년 12월 29일 3)국민은행 여천지점
2007카공 11 백지인	1)전남 고흥군 도매리 오마리 310 자기앞수표(라미82321360)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6일 3)국민은행 여수지점 2)2007년 1월 4일 3)농협중앙회합동중리지점
2007카공 12 박종선	1)광양시 황갈동 709-5 자기앞수표(가153658486~가153658481) 각금100,000원(16매) 2)2006년 12월 14일 3)농협중앙회합동중리지점
2007카공 14 이희서	1)김포시 고촌면 대리 1018-1 자기앞수표(28143804) 금1,000,000원 2)2006년 10월 16일 3)국민은행 여수지점
2007카공 15 장광복	1)여수시 연동동 731-10 자기앞수표(16296401) 금1,000,000원 2)2007년 1월 5일 3)국민은행 여수중앙지점(국민은행 여수중앙지점) 약속어음(자카283630682) 금2,310,000원 2)2006년 12월 27일 3)안인이엔씨(주)(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2700카공 16 정선희	1)여수시 광무동 786-26(송달장소:여수시 병산동 698-2 삼일약품(주)) 자기앞수표(라미60726186~50726190) 각금1,000,000원(4매) 2)2006년 11월 23일 3)우리은행 여수지점(여수시)
2007카공 17 손세준	1)여수시 동문동 한려주공아파트 110-1501 자기앞수표(16-88366949)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27일 3)농협중앙회순천여수지점 자기앞수표(라미4409486)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28일 3)여천농협합동조합
2007카공 18 정경식	1)부산 사상구 개빈동 519-1 사상간변동원아파트 104-2101(1) (송달장소:부산 사상구 영곡동 651-1(한국비메타리아어) 가계수표(야미02054125) 금3,000,000원 2)2007년 2월 27일 3)농협중앙회 여수지부
2007카공 19 송권	1)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둔리 215-10 자기앞수표(26339834~41) 각금100,000원(8매) 2)2006년 11월 30일 3)농협중앙회 남계지소
2007카공 20 박선애	1)여수시 신가동 14-6(송달장소:여수시 민산동 516-1) 자기앞수표(87643482~5) 각금1,000,000원(4매) 자기앞수표(33814327) 금500,000원 2)2007년 1월 5일 2)농협중앙회 여수지부
2007카공 21 손영보	1)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안리 782 자기앞수표(88472074~100) 각금500,000원(27매) 2)미기재 3)별교농협합동조합 조상지점(별교농협합동조합 조상지점)
2007카공 22 윤병기	1)순천시 서면 압곡리 695-15 자기앞수표(가120190683~70) 각금100,000원(8매) 2)2007년 1월 4일 3)우리은행 광양OSCO지점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지)
2007카공 23 이명준	1)여수시 신월동 114-7 급성아파트 101-704 자기앞수표(가카02093761~9) 각금100,000원(9매) 2)2007년 1월 12일 3)광주은행 곡동지점
2007카공 24 박종관	1)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조화아파트 비동 416호 자기앞수표(54422342) 금1,000,000원 2)2007년 1월 15일 3)순천농협 해동지소
2007카공 25 주식회사해동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수현	1)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79-12 약속어음(자카03330057) 금1,500,000원 2)2006년 8월 25일(2006년 12월 5일) 3)정태진(광주은행 연향동지점)
2007카공 26 김상선	1)여수시 학동 260 자기앞수표(54417370~1) 각금1,000,000원(2매) 2)2007년 1월 2일 3)여천농협 선원지점
2007카공 27 정하택	1)순천시 조계동 357-6 자기앞수표(라카41584827) 금1,000,000원 자기앞수표(자카03115292~4) 각금100,000원(3매) 2)2007년 1월 12일 3)광주은행 금강지점
2007카공 28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대표이사 배재영	1)여수시 충무동 445 약속어음(02648235) 금2,000,000원 2)2006년 10월 2일(2007년 1월 5일) 3)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우리은행 여수지점)
2007카공 29 한영남(주)영남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성호	1)전남 구례군 광의면 구안리 252-1 자기앞수표(라미49401510) 금1,000,000원 2)2007년 1월 25일 3)평의면복합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구해농협 합동조합 광의지소)
2007카공 30 김우식	1)여수시 돌산동 둔전리 873 자기앞수표(라미49403689) 금1,000,000원 2)2007년 1월 25일 3)여수농협 우두지점 여수축산농협본소
2007카공 31 박일복	1)평양시 평양동 유산리 598-4 자기앞수표(가166185261~3) 각금100,000원(3매) 2)2007년 1월 8일 3)광양농협합동조합
2007카공 32 김순옥	1)여수시 중앙동 231-1 자기앞수표(01657411) 금1,000,000원 2)2007년 1월 19일 3)국민은행 여천지점
2007카공 34 김상현	1)순천시 조계동 766 시대아파트 109-1418 자기앞수표(라미70051818) 금1,000,000원 2)2007년 1월 22일 3)중소기업은행 순천중앙출장소(전라남도)

상기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일인 2007. 05. 15. 0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2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구광현